

與, 내란재판부법 연내 처리... ‘법왜곡죄’는 속도 조절

11~14일·21~24일 본회의...사면 제한 규정 삭제 등 위험 소지 제로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이달 처리...법원행정처 폐지는 다음달로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의 처리에 속도 조절을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언론과 통화에서 이 같은 방안이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하고 “대체로 이리 해야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12월 임시국회에서 비교적 논란이 적은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조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처리하되, 또다른 위험 논란 등이 제기된 법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사실상 연내 처리 방침을 접었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독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들 법안을 거론하며 “이런 것들은 다 1월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는 내란법의 사면 제한 규정 삭제,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 1년까지 연장 가능 규정 삭제,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추천권 부여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 및 헌법재판소장 삭제,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만 설치 등을 통해 위험 시비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존 형사소송법, 사면법

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전체적으로 지도부 의견은 위험 소지 최소화 아니라 제로화해서 법안을 성안해 올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 논의된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다. 성안 작업을 더 해야 한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법안 관련 위험 소지를 불식하지 않으면 오히려 계엄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사법개혁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 지도부가 내용 및 속도 조절에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악법 저지를 위해 전면적 필리버스터를 예고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연내에 6개 정도의 법안만 처리 가능한 상황도 전략 변경의 이유다.

국회는 우원석 의장의 일정을 이유로 11~14일, 21~24일에 본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기간에 전날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가맹사업법 개정안(11일 본회의 표결)과 함께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2일 국회 통과)과 맞물려 있어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외에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안 등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도입,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도입 등과 관련된 법안 역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세부적인 리스트를 작성 중이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개혁법안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월부터는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정치적 이슈보다는 민생과 관련된 정책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힘 비례’ 순천 출신 인요한, 의원직 사퇴

“계엄 후 불행한 일들 극복해야”...이소희 변호사 의원직 승계

순천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인요한(사진) 의원이 10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천운’ (천운석열)인 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면서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 기여·헌신해 온 제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그동안 부족한 점을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인 의원은 회견에 앞서 장동혁 대표 등과 면담했으며,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의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한편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 출신인 인 의원은 2023년 10월 23일 김기현 대표 재임 시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8번 순번을 받아 당선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지방선거 공천 앞 현역 ‘현미경 검증’ 돌입

‘의정 활동 평판’ 등급 결정 핵심 변수...13일 DJ센터서 설명회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돌입했다.

정청대 대표가 인위적인 컷오프(공천 배제)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거쳐 부여하게 될 감점 페널티가 사실상 공천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여 지역 평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시당과 도당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선출직 공직자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도당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현역 의원들에게 안내했으며, 광주시당은 13일 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평가 위원회 구성도 마무리됐다. 광주시당은 최은정 전남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전남도당은 오재일 전 전남대 교수를 각각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양 시도당 모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11명 규

모로 위원회를 꾸려 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평가는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이를 제외한 현역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체장의 경우 도덕성과 리더십, 공약 이행도, 직무 수행 능력, 주민 삶의 질 개선 기여도 등이 주요 잣대가 된다. 지방의원은 입법 활동 실적, 행정사무감사 대응 능력, 지역 사회 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평가 방식은 선출직 공직자가 제출한 실적 자료와 프레젠테이션 등을 바탕으로 정성·정량 평가가 이뤄진다. 외부 기관이 수행하는 여론조사와 동료 의원들의 다면 평가 점수가 포함돼 있어, 평소 지역구 관리와 의정 활동 평판이 등급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평가위원회는 한 달여간의 정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20일까지 모든 평가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의 이목은 ‘하위 20%’ 명단에 쏠리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향후

공천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하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민주당 경선 구도에서 20% 감점은 사실상 극복하기 어려운 격차로, 재선 이상을 노리는 현역들에게는 치명적인 수박에 없다.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를 보면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이 전국 단위로 심사하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각 시도당이 맡는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산술 계산하면 광주·전남 지역 현역 가운데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4명(광주 1명·전남 3명), 광역의원 15명(광주 4명·전남 11명) 안팎이 감점 대상인 하위 20% 그룹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컷오프 없이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하위 평가를 받고 경선에서 살아남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현역들 사이에서는 이번 평가가 본선보다 더 무서운 ‘살생부 작성’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